

전남광주 지방의회, ‘협치’ 실종… 소수정당 외면 여전

광산·북구의회, 민주당 반대에 교섭단체 조레 부결
나주시의회, 상임위원장 2석 양보… 모범사례 ‘호평’
지역 정치권 “다수당 독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민선 제10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정가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각 지방의회에서 상생을 내세우며 전반기를 시작했음에도 원구성과 교섭단체 구성에 엇박자를 내면서 풀뿌리의회가 상생과 타협보다는 진영 논리와 자당 이기주의에 갇혀 소수당 배려나 대화의 정치를 외

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김은정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원 3명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산구의회는 정원 19명 중 민주당 14명,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통해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대 의회에 이어 교섭단체 구성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 조례안이 표류하게 됐다.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

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구의회 소수정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4명)을 충족, 현재 진보당 손혜진·장애란 의원, 조국혁신당 이정윤 의원, 무소속 기대서 의원 등이 교섭단체를 꾸린 상태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최근 제31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손혜진 진보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

혀 1시간 넘는 토론과 정회 끝에 결국 부결됐다.

서구의회에서는 제1호 조례안으로 진보당 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예고, 9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나주시의회는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지방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서 4석의 상임위원장 자리 중 절반인 2석을 야당이 차지했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11석, 조국혁신당 2석, 진보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게 가능했지만 행정복지위 원장에 황광민 진보당 의원, 에너지관광위 원장에 김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선출하며 파격적인 협치를 보였다.

남구의회 또한 2주간 원구성 파행을 겪었음에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조국혁신당에 양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회마다 원구성과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다수당이 기득권에 안주해 소수 야당을 배척하고 협치의 문을 닫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중국 글로벌 크루즈 선원

장흥·보성 팸투어 ‘만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여수항으로 입항한 중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 아도라의 매직시티호 승무원을 초청해 장흥·보성 일원에서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팸투어는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선사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광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남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찾아 다양한 축제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이어 보성 녹차밭을 방문해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화 관광자원을 둘러봤다.

이들은 관광 콘텐츠의 차별성과 체험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계절별 특색을 살린 크루즈 기항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팸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크루즈 관광객 선호와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문화·자연·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선사 맞춤형 기항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항 국제 크루즈 입항은 지난해 7항차에서 올해 24항차, 6만50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우리동네 골목맛집 신규지정·대표자 역량강화 교육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우리동네 골목맛집 신규지정 및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신규 선정 업소 대표자에게 지정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민 목소리 듣는다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자치구별 시민공청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시민 의견을 집중 수렴,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의견수렴 기간 중에는 5개 자치구를 순회하는 ‘시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자치구별 공청회는 10일 동구를 시작으로, 11일 남구와 서구, 12일 북구와 광산구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청회는 노선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지

역별 노선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쿼알(QR)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에서는 3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시민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과 광주 5개 자치구 누리집, 광주버스은행정보(BIS)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변경된 노선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일·휴가 함께… 전남광주, 워크케이션 확대

여수·나주 등 7개 시군 운영… 체류관광 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과 산림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크케이션(Workation) 사업을 확대하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여수·나주·보성·해남·함평·완도·진도 등 7개 시군에서 업무공간과 숙박, 지역 체험을 결합한 워크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일 밝혔다.

워크케이션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형태로,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은 물론 1인 사업자와 디지털 노마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보성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울포해수욕장센터 등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완도는 해양치유센터의 해조류 스파와 해수치유물 체험을 운영한다.

여수는 요트와 아쿠아플라넷 체험, 나주는 전통한옥 숙박과 나주배 한상 체험, 해남은 오시아노캠핑장과 자전거 투어, 함평은 갯벌체험과 해수찜, 진도는 해양안전 체험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참가자에게는 웰컴키트가 제공되며 보성·해남·함평·완도·진도에서는 공유차량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해남은 캠핑카 할인도 함께 제공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는 여수·나주·보성·해남·함평·완도·진도 등 7개 시군에서 업무공간과 숙박, 지역 체험을 결합한 워크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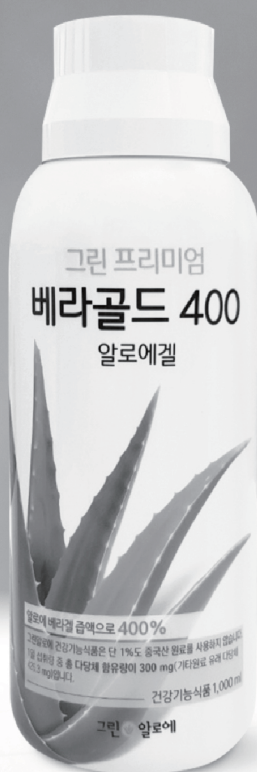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